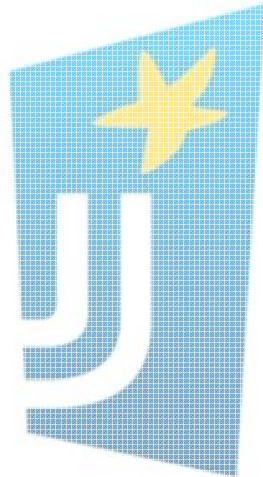


#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러티브워크숍-



학번 : 202065006

이름 : 이진희

### 1. 기획 의도

- 처음 본 사람의 행동과 말투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두 파악할 수 없음을 직접 겪은 경험담을 통해 풀어보고자 기획.

### 2. 주제

- 아무리 급해도 위험함을 느끼면 돌아가자.

### 3. 한 줄 요약

- 통화하며 지하 호출 벨 집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틀리자 화를 내는 주민 박정반을 만난 주민 최유진은 정반을 대신해서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데, 정반이 화를 낸 모습을 본 유진은 두려움에 떨다 딸에게 살갑게 대하는 모습에 그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두려움은 사라지고 허무함이 남는데

### 4. 등장인물 백그라운드

#### 1) 최유진

20대의 여성. 착하다. 말수가 없다. 무뚝뚝한 성격이다. 어색하거나 당황하면 속으로는 오만까지 생각을 한다. 인사성이 바르다. 예의 바르다. 예의 없는 사람을 싫어한다.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는다. 더러운 걸 싫어한다. 강해 보이고자 노력하나 심성이 여리다.

#### 2) 박정반

30~40대의 남성. 뒤끝이 세다. 말에 무게감이 있다. 문신이 있다. 화가 많고 짜증이 많은 사람이다. 각 잡혀 있는 옷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걸 안다. 이중인격이다. 정보가 새어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 딸에게는 한없이 착한 아빠다. 아내에게 약하다.

#### 3) 박나연

초등학생. 발랄하다. 해맑다. 세상 걱정이 없다. 순수하다. 애교가 많다. 말수가 많다. 당당하다. 아빠를 좋아한다. 아빠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 자신감이 넘친다. 사람을 좋아한다. 남에게 먼저 다가간다.

## <엘리베이터 안에서>

### S#1. 지하 주차장/낮

차를 잠그고 있는 유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가방을 뒤적이며 핸드폰을 찾아 전화를 받는다.

유진 : 네, 팀장님  
저 오늘 반차라고 다시 말씀드렸었  
(인터폰 쪽으로 눈이 가다가 팀장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말을 다 하지 못한다)  
네... 네... 네. 바로 가겠습니다. 네...

유진은 손에 들려있는 장바구니를 보다 한숨을 쉬고 집을 향해 발걸음이 빨라진다.  
유진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처음 보는 정반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다.  
가까이 갈수록 정반이 통화하는 것이 보이고 그 대상에게 화를 낸과 동시에  
비밀번호가 틀릴 때마다 화를 내는 소리가 또렷해진다.  
유진은 발걸음이 점차 느려지며, 화를 내는 정반의 모습에 조금 겁에 질렸지만  
1층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늦기에 어쩔 수 없이 정반에게 향한다.

유진 : (시간을 살피고 정반에게 다가간다)

정반 : (통화하면서 화를 낸다) 아니 X발 그러니까 왜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하냐고  
하... 니들은 대가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냐?  
(비밀번호가 틀릴 때마다 화를 낸다) 아이씨..... 쓸데없이 이것까지 열 받게 만들어

유진 : (정반과 더 가까워진다)

정반 : (다시 시도했지만, 역시나 틀린다) 아이 C 해결을 보라고 빨리

유진 : (주춤거리며) 저기...

정반 : (유진을 내려다본다)

유진 : (멈칫거린다) 제가 할게요. (문을 연다)

문이 열리고 서로 먼저 들어가려다 주춤거리게 되고 유진에게 전화가 온다.  
그사이 정반은 먼저 들어간다.

유진 : (다급하게) 네 선배,  
(허공에 굽신거리며) 네네 얼른 갈게요. 넵

### S#2. 엘리베이터 앞

바로 도착한 엘리베이터.  
정반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모습에 유진은 발걸음을 재촉한다.  
엘리베이터 앞에 다다르자 문이 서서히 닫히는 것이 보인다.  
유진은 더욱 급히 서둘러 열림 버튼을 누르며 엘리베이터를 탄다.  
정반은 엘리베이터 문 앞 왼쪽에 있다.  
유진은 정반을 의식하며, 피해 오른쪽 안으로 들어간다.  
엘리베이터 문은 닫히지 않고, 정반은 층수를 누르지 않은 채 계속 통화한다.

정반 : (좀 차분해진 톤으로) 그래서 뭐. (어깨로 핸드폰을 지지하고 왼손에 낀 반지를 만지며)  
니들이 언제부터 사람보고 움직였다고 돈 보고 움직이는 놈들이. (왼손으로 핸드폰을 잡으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피를 보든 뭘 하던  
(검지로 미간 사이를 문지르며 유진을 흘깃 쳐다본다)  
우리가 돈 받는 건 똑같으니까 빨리 진행해.

유진은 괜히 불안한 마음에 자신도 층수를 누르지 않고 그를 주시한다.  
그가 화면이 꺼지지 않은 핸드폰을 손에 든 채 6층을 누르고 안쪽으로 들어온다.  
유진이 그를 계속 주시하며 9층을 누른다.  
그러자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닫힌다.

### S#3. 엘리베이터 안

유진은 땅을 보다가 거울로 비친 정반을 보는 것을 반복한다.  
정반은 핸드폰으로 바쁘게 일을 보고 있어 유진이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핸드폰 알림 소리가 울린다. 정반은 인상을 찌푸리며 메시지를 확인한다.

정반 : 후….

유진은 정반의 작은 움직임, 소리에 반응한다.

정반 : (나지막이) 쫓, 사람 하나 처리를 못 해.

유진은 정반의 말에 흠칫 놀란다.  
확인을 다 마친 정반은 핸드폰을 재킷 안쪽 주머니에 넣는다.  
엘리베이터 안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불안함에 손에 핸드폰을 꼭 쥐고 여차하면 신고하기 위해 긴급전화를 준비한다.  
정반은 유진을 한번 쳐다본다.

정반의 시선에 찢린 유진은 핸드폰을 뒤로 숨긴다.  
그러고선 그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더 피하고자 잠깐 그에게 갔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평상시라면 들리지도 않았을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엘리베이터가 이렇게까지 숨 막히는 공간은 아니었지만,  
불안함을 숨기지 못한 유진은 미세하게 떤다.

#### S#4. 멈춘 엘리베이터 안/밖

정반의 층수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내리려는 정반이 잠깐 멈칫한다.  
딩달아 정반이 열린 내리기를 바랐던 유진도 그가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다 멈칫한다.  
엘리베이터 밖에서 어떤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나연 : (밝게 정반에게 다가가면서) 아빠!

정반 : (웃으며 딸 머리를 쓰다듬음) 딸 왜 나와 있어?

나연 : 오늘 학교 안 갔잖아! 그래서 마중 나왔지~  
(시선을 유진에게 돌리며) 안녕하세요!

유진 : (당황해 말없이 꾸벅 인사를 건넨다)

정반 : (유진을 살짝 바라보고 나연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엄마는?

나연 : (정반에게 팔짱을 끼며 당긴다) 엄마? 엄마 어디 나간다고 하던데?  
우리 엄마 빼고 맛있는 거 시켜 먹자.

정반 : (웃으며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래. 그럼 우리 딸이랑 뭘 먹을까?

정반과 나연이 유진의 시야에서 점차 사라진다.

#### S#5. 엘리베이터 안

유진은 열림 버튼을 누른 상태로 그들이 집을 들어가는 소리까지 듣고는  
버튼에서 손을 떼고 문이 닫히자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쉴다.  
유진이 안심하기도 잠시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린다.  
매우 놀란 표정의 유진.

엘리베이터는 9층으로 가지 않고 지하 1층으로 간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끝-